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총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98 하기 농어촌전도대 준비 중

주님 안의 한 지체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음 안에서 진 빛 농어촌 교회에 갇아



전 도위원회 산하 농어촌전도부에서는 '98 하기 농어촌전도대 파송을 앞두고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7주년이 되던 1960년 여름 이미 '청년회 계몽대'를 농어촌 지역에 파송하여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의 섬김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1972년에는 농어촌 교회에 근본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 '농어촌 교회 전도학교 교사 초청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때로부터 하기봉사대를 하기전도대로 바꾸어 전도요원들을 훈련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파송하는 등 농어촌전도를 양방

향의 활동으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1972년과 1973년에는 파송지역들에서 각각 725명과 817명의 결신자들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1976년부터는 소위 삼박자(혹은 삼단계) 전도대 증원 농어촌전도대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곧 일차로 농어촌 교역자를 초청하여 훈련하고, 다음 단계로는 농어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장로 또는 주일학교 지도자)을 초청하여 훈련한 후, 마지막 단계로 훈련받은 교회들 가운데서 몇 개의 교회들을 선정하여 그들과 증원농어촌전도대가 협력하여 해당 교회의 지역 사회를 복음의 물결로 휩사는 전도전략

이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강렬한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운동은 자연스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사실 도시 교회의 젊은 일꾼들 중 다수는 농어촌 교회 출신들이다. 대학 진학 및 직장 이동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도시로 물러온 다수의 젊은이들이 도시 교회의 부흥에 큰 몫을 감당해 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 교회는 암암리에 막대한 인적 자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농어촌 교회를 향한 도시 교회들의 관심은 냉담과 무관심, 소액지원의 생색 등으로 계속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출혈의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연약한 지체 교회들을 도왔던 초대 교회의 정신을 위한다는 몸되신 주님에 대한 불충성인 셈이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예전의 기준에 비추어 74월 중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할 계획이다. 곧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 중 전도대 파송을 요청하는 교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타지역 비지원교회라 할지라도 교리적요 이상한 교회가 아닌 한 가급적 모든 요청 교회들에 전도대를 파송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파송된 전도대와 일정 및 방침에 관한 사항들은 6월 말경 전도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이미 각 교구와 교동·대학·청년부 등에서는 전도대를 구성하고 지역을 확정짓고 기도회를 시작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현의 성도들은 물론, 인적 자원의 고갈로 허덕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붙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물질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소수의 농어촌 교회들로 인해 간헐한 복음적인 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와 헌신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사신 / 1968년 파송된 청년 계몽대의 사역 모습.)

신령한 예배 위한 시청각실

교육관 2층, 주일 오전10시-찬양예배 전



지난 3월부터 어린 자녀를 둔 성도들의 봉사와 예배를 돕기 위해 '순수 타아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시청각 교육관 2층의 시청각실. 이곳에서는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찬양예배 전까지 부모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유아 및 유·초·소년부 학생들을 위해 성경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할 만한 대상자는 상당수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거나 비디오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다수가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을 시청각실에 맡기는 성도 다수는 이 안전한 공간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 어린들이 부모와 떨어져서라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방치되지 않기 위하여 이 공간이 타아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협조와 기도가 필요하다.

남성충찬당 정기공연

·일시: 1998. 6. 27(토) 저녁 7시 30분
·장소: 압구정동 세실홀

제1회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

총현교회 찬양위원회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계신 중소 교회의 찬양대의 활성화를 도와 섬기고자 하는 뜻에서 아래와 같이 제1회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를 준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일시: 1998년 8월 19일(수) 16시 - 21일(금) 22시
2. 장소: 충현교회 및 충현기도원
3. 강사: 충현교회 찬양대 지도자, 교역자 및 찬양감독 등 13명
4. 강의: 깊이 있는 성기 교육 및 영성 훈련
5. 자격: 본 교단 소속 교회 중 출석교인 300명 미만 교회나 찬양대원 30명 미만인 교회의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6. 인원: 총 200명(지휘자 100명, 반주자 60명, 독창자 40명 등)
7. 신청: 참가신청서 /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 참가비(3만원)
 - 1) 동기유발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접수증과 참가 안내서는 접수 즉시 개인별로 우송합니다.
 - 2) 정해진 참가인원만 신청하셔서 접수합니다. 따라서 접수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재 및 숙식 등이 일체 제공됩니다.
 -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급유일 밤까지 숙식이 제공됩니다.
8. 접수: 1998년 7월 13일(월) - 8월 1일(토)
 -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02) 552-8200 (교한 259, 260번)
9. 기타: 수료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구호용품 기증을 기다립니다

선교위원회의에서는 6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하는 단기선교에 필요한 구호용품들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품목

- 의약품: 비타민, 피부약, 모기약, 안약, 구충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 의류: 4계절용(제한 없음), 한옷일 경우에는 세탁을 요망).
- 문구류: 제한 없음.

2. 접수

- 기 간: 6월 14일까지
- 접수처: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사야 21:1-17)

"세상이 범죄한다고 나도 같이 범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범한 죄를 바로 회개하여 앞으로 올 환난을 대비하고, 오히려 복판을 준비를 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이 받는 복을 옆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창인 목사

1. 바벨론에 관한 경고(1-10절)

(1) 바벨론이 멸망의 경고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2절)
바벨론에는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멸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여 돈을 모으고 권세를 손아귀에 넣고 함정에 빠뜨리니, 결국 바벨론에는 악독한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2)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십니까(2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시고 열만 파사와 매대 두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파사와 매대로 하여금 연합군을 조직하도록 하여 바벨론을 함락시키겠다는 것을 바벨론이 멸망하기 수십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현장에 출동시켜서 당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처럼 원수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바라본 아시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나의 요요이 심하여 일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능하지 못지 못하다 내 마음은 흔들려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회망의 서령이 변하여 내게 멸망이 되도다"(3, 4절)
이 말씀은 아시아 선지자가 앞으로 배어 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는 산기에 임한 여인이 놀라는 것처럼 너무 놀라고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아시아의 예언을 듣고도 바벨론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5절)
바벨론은 매대, 파사가 쳐들어오는데도 방심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환상에 빠져서 무기조차 닦아 놓지 않고 항복해 빠져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될 당대에 찢었고 밤이 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생생이 오나이다..."(8, 9절)

'마병대가 생생이 온다'는 말은 적에게 불타는 원수들이 사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도전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가 대담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9절). 바벨론의 우상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서져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시아 선지자는 이런 멸망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바벨론을 향하여 외쳤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천령 관원들과 어울려 술을 먹다가 멸망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유다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10절)
'나의 타작한 것, 나의 마당의 곡식'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타작하는 진노의 도구였는데 이런 바벨론이 망할 때에 아시아 선지자를 통해 유다에게 회개를 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경고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멀지 않았으며 그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죄악을 범하여 대산처럼 쌓고 있으니 별 수 없이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그 날이 택함을 받은 유다에게는 행방의 날이 됩니다. 이처럼 망에서 억울함을 당하던 성도들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날에는 천국 잔치를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듣고도 바벨론이 잠든 두 무서운 죄를 범할 때에 택함을 받은 유다가 더욱 회개해야 했듯이, 오늘날 세상이 말할 수 없이 범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제법의 때가 가까워 줄 알고 더욱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행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 두마에 관한 경고(11, 12절)

두마는 아람의 형 에서의 후손인데 동쪽 족속입니다. 이 경고는 선지자인 파수꾼에게 묻는 질문과 그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두마가 파수꾼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11절)

두마가 지금 바벨론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아침이 언제 올까', 즉 '언제나 우리가 독립을 얻었습니까?'라는 말입니다.

(2) 파수꾼이 두마에게 대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2절)

파수꾼인 아시아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때,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오겠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나라" 지금 두마 사람들도 바벨론에게 압박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악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날에 유다가 자유를 얻으면서 두마도 같이 자유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지만 또한 당장에 밤이 뒤를 따르나다는 것입니다. 행방이 되어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압박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너희가 유다와 함께 행방의 아침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은혜의 아침이 아니고 날이 받는 바에 잠깐 동참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준비가 없으므로 곧 말살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합니다.

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13-17절)

아라비아는 가나안의 동남 편에 위치한 큰 나라로 유다는 아라비아를 백처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몰락하게 될 것을 보여 주십니다.

(1) 아라비아가 어떻게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13절)
드란의 대상은 수백 명이 약대를 타고 매를 지어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장사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드란의

장사꾼들이, 지금은 아라비아가 저렇게 화려하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이곳을 지나다가 천막을 치야만 될 황폐한 땅으로 변하고 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 경고를 받은 아라비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14절)

이상의 비극이 밀어닥치기 전에 아라비아가 할 일은 과거를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약자를 괴롭히다가는 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이 전쟁 준비를 하였으나 싸워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는 아시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전 700년에 아라비아는 아시아의 예언대로 망하여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일년 내에 개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였었습니다(16, 17절). 개달은 이스라엘의 자손(창 25:13)으로서 아라비아 부족들을 집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1장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벨론처럼 개인이나 정당이 나 나라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할 때에는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는 날이 오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아시아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괴롭혀던 자가 망하게 되어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를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세상이 범죄한다고 나도 같이 범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범한 죄를 바로 회개하여 앞으로 올 환난을 대비하고, 오히려 복판을 준비를 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이 받는 복을 옆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설교

돌

(창세기 28:18-22)

“본문에서의 ‘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곱이 세운 기둥의 맨 위에 얹어진 돌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기둥부는 머릿돌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김성관 목사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지므로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었습니다(10:11절). 그는 자신의 형인 에서의 분노를 피해 홀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낯설고 어두운 곳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의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를 삼고 누워 잠 때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오하신다는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야곱의 꿈이 창세기 28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비할 때, 야곱이 베고 잔 ‘돌’은 그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리나 명예에 대한 단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붓고”(18절) 본문에서의 ‘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곱이 세운 기둥의 맨 위에 얹어진 돌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기둥부는 머릿돌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그 돌을 베고 잠으로써 경배하였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돌’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삶은 비로소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으며 야곱이 이들을 가진 것과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고 잠갔던 그 장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곳 이름을 베히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교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하여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거신 집인 것을 깨닫고 베개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고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버려지어서는 안 됩니다. 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새 언약이 선포되고 실천되는 곳입니다. 경배와 예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돌들이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건축되어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

님앞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어둠 속에서 돌을 찾아냈듯이 우리도 어디에서나 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밤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 야곱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을 부어 거룩하게 된 돌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신다고 기록한 에스겔서 17장을 기억하십시오(겔 17:24). 마른 나무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을 만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베히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교제를 맺게 하는 유일한 돌이며 연결자가 되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잔 돌로 기둥을 세워 그가 경험한 것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베히엘이 생겼으니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속하여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돌로 줄 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움과 근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려면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시간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저 병원이자 집, 혹은 일터, 차 안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결속하여 그분을 찾으시면 만나 시킵니다. 여러분에게로 오십시오! 시간 약속도 중요한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결속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임케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이 사위하여 가되 하나님이나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20-21절). 야곱은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인 하나님의 입재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두고 서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자신도 회답의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교제,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 진실된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자신도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약의 서두인 본문에 기록된 ‘돌’의 중요성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산 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벧전 2:4-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시며 머릿돌이십니다. 산 돌 없이는 성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산 돌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는 산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므로 산 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성과 그분과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돌을 태웠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은 그저 발에 채이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지만, 그 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실망하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물과 은혜가 이 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바뀌었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야곱은

비밀한 겁장이었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을 들어 기둥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산 돌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재물을 드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산 돌들을 모으시고 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들어서 그를 위해 성결케 되어야 할 돌이십니다. 우리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가능케 하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드리겠습니다”(22절). 이것이 죄인인 야곱이 행한 일이며 귀한 충현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지금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확실한 길 간증이고 언약입니다. 야곱은 그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고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전할 서원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산 돌들이 모여 성당해가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리고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을 찾는 것보다 더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분만이 힘겨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골 3:20-21). 작은 여러분이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가 주십니다. 저는 누구든 저를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는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계십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산 돌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

미전도 종족 입양이란?

종족 입양

종족 입양(Adopt - A - People)은 교회가 미전도 종족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미전도 종족을 맡아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종족을 입양한다는 것은 교회, 학생단체, 개인이 하나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복음이 들어간 후에도 현지인에 의해 현지 교회가 자생 능력을 갖출 만큼 성장할 때까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기도, 재정적인 후원과 인적 파송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왜 종족 단위의 선교가 필요한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이 말씀 중 '족속'(Ethne)은 전통적으로 '국가' 단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 단어를 '종족'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가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단일국가, 단일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종족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330여 종족이 모여 인도네시아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다면 330여 종족 전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330여 종족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지,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예로 쿠르드라는 종족은 그 인구가 2900만 명이나 되지만 아직 국가가 없다. 이 쿠르드족도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 단위의 선교 개념에서 벗어나, 전 세계 11,000개의 미전도 종족(People Group)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종족 입양은 교회가 미전도 종족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미전도 종족을 맡아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야무 걱정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땅 방글라데시를
복음의 생명이 가득한 축복의 나라로

김 은 미(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가난과 홍수의 나라, 그 극심한 빈곤함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 그리고 원조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알라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굳게 믿는 불쌍한 영혼들의 나라! TV나 여러 구제기구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가난함에 대한 상징 같다. 내가 단기 선교지로 방글라데시를 희망했던 것은 바로 그 가난에 대한 애통할 때문이었다. 똑같이 귀한 생명으로 창조되어 왜 한 쪽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다른 한 쪽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호화사

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조리함에 참으로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두 벌 옷을 가졌으면 있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실현되어야 할 땅!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그 암흑 가운데에서 열 빛고 억압받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특별한 그들의 고통은, 바로 위로부터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더욱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 극복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선교여행은 더욱 기대되어진다.

한번도 해보지 않은 선교 여행의 준비들!

모든 것이 부족하나 그렇기에 더욱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으니 감사할 뿐이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팀원들이 이제는 차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막막하기만 하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연결하는 일들, 일정과 예산을 짜는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며,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된다.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던 나에게 그곳의 선교사님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시며 절절 웃으신다. 그 푸근한 웃음소리에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사 25:4)

◀ 지난해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의 사역 모습.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단기선교(6월-8월)를 위해 집
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월 / 단기선교를 통하여 교회
전체적으로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
나도록.

화 /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각
팀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 / 단기선교팀이 방편할 현
지인 영혼들이 성령의 이끄심
으로 준비되도록.

목 /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단기선교팀을 통하여 선교의 열
매가 풍성하도록.

금 / 애급 현지 지도자훈련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토 /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동
참할 헌신된 일꾼을 보내 주시
도록.



풀무불

풀무불! 그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박 영 진(대학부 2학년)

풀무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던 그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은 다른 팀과는 다르게 재수를 경험한 선배들과 뜻을 품고 주 안에서 공부하는 후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팀과는 달리 더 많은 사랑과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선배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의고사가 끝나는 날이면 함께 식사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풀무불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체들과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팀의 지체들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풀무불 팀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눈물이 많다는 겁니다. 재수라는 상황을 겪어 본 선배들이기에 함께 중보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안타까움이나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 역사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흘리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기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기에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의 성장과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풀무불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풀무불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연단의 시간이 끝난 후 무릎 꿇고 감사기도 드리길 소망합니다. 대학부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안에서 깊숙이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풀무불은 단지 풀무불이 아닙니다. 사랑의 풀무불이요, 소망의 풀무불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 선배들은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주시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이 충헌 대학부를 이끌어갈 세백 이들 같은 주의 청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풀무불, 소망의 풀무불을 기억하십시오.

인도단기선교팀

7월 23일, 대학부 소속 12명의 대원들은 후턴 지근한 인도 델리에 도착하게 된다. 7월 23일(목)부터 8월 3일(월)까지 11박 12일 동안 있을 인도 선교를 위하여 지난 5월 3일 주일에 팀원을 구성,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10일에는 업무 분담을, 16일에는 기도회 및 기초준비작업을, 17일에는 다시 업무 분담, 지역프로그래밍 협의 및 인도 조사 분담을 하였고, 24일에는 인도에 관한 영역별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영어 및 힌두어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훈련에 들어갈 것이다. 6·7월 중, 1박 2일의 MT를 통해 팀원간의 단합과 영적인 훈련을 계획하고, 인도에 출발하는 주간에는 평일이 수시로 모여서 미진한 부분을 준비하며 팀웍을 다질 예정이다.

대학부 지도자인 김동하 목사님과 윤원인 장로님, 김영길 목사님과 함께 김일승 대학부 간사를 팀장으로 하여, 총 12명의 대학부 지체들이 떠난다. 델리의 슬럼가에서는 어린이 재육대회를,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와 하리드와르 등에서는 현지 교회에서 사역할 계획이며 현지 협력 선교사는 조나단 최이다.

준비 모임 3회 이상 불참자는 결격되며 사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은 개인 회비로써 충당한다. 매일 인도단기선교와 팀을 위한 중보기도, 언어·찬양·인도 연구 등 준비, 개인 건강 관리, 준비모임 시간 준수'는 팀원 준수사항이다.

낙도 전도

'낙도'를 바라보며

전 보 은(대학부 1학년)

대학부 낙도전도팀은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있는 낙도전도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6시, 5명 정도의 지체들이 꾸준히 모여 365일 중보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도 어느 해와 다름없이 전라남도 고흥으로 떠납니다. 6월 14일까지 참가자를 받고 약 4주간 준비 및 훈련 시간을 갖습니다.

여년과 다른 점은 소수가 가게 되더라도 정말 '준비된' 이들만으로 팀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아닌 3·4학년들도 충분히 조장으로 실수 있게 학원생활 전도훈련을 계획 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한 사역자들의 마음이 좀더 확신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매년 두번씩 같은 장소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별로 뿌려지지 않은 듯한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켜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기간은 8월 10일부터 14까지입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에게 낙도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낙도' 연락선이 닿지 않는 모든 섬들, 이제껏 많은 수련회를 다녀보고 봉사한 했지만 낙도사역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만 같았고, 꼭 가야만 할 것 같았다. 장려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낙도에 갔고, 그렇게 나의 낙도사역은 시작되었다.

전도를 별로 해보지 못한 나에게 역시 가장 도전이 되었던 낙도사역은 축조전도였다. 섬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님을 전하는 축조전도를 통해 우선은 내가 주님께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모태선양으로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했던 나의 생각은 고만이었었던 것이다. 주님은 낙도사역을 통해 나의 고만을 깨트렸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낙도사역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는 가족, 친구와 같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내려오지 못하면서 얼굴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사람들을 전도하러 애쓰고 반문할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충헌교회 대학부 지체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한다. 주님이 낙도를 향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하여, 순종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대학부를 택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라 명하신 것이다.

나는 아직 낙도사역에 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날 택해 주셨고, 낙도를 향해 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의 소중한 자제를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최 준 호(집사, 청년2부 교사)

얼마 전 회사에서 건강 진단을 받게 되었다. 연령적으로 하는 검사라 담당 마음으로 웅했다. 위검사는 해마다 내시경검사를 해서



5년 전 위암 수술 이후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왔고 이번에도 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소견없이 끝났는데 7일 후의 종합 판정에서 담당의사는 별 것 아니라면서 장내 종양의 이상유무를 나타내는 수치가 조금 높으니 시간이 나면 한번쯤 가까운 병원에서 대장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5년 전 초기 위암을 발견하여 수술한 경험 있고 휴가를 얻어 놓은 상황이고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장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1주일 동안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하여 청원기도원으로 갔다. 대장검사를 위하여 기왕에 금식을 시작했으니 금요일에 집회까지 계속하여 금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등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좀더 깊은 관계를 맺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금식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되었다. 오전 11시쯤 되어 병원에 결과를 보러 갔던 아내로부터 급한 호출이 왔다. 아내의 아가일이 즉 CT검사에 이상이 없는데 장 X-ray 사진상에서 무슨 덩어리가 보이는 데 일일치도 모르겠으니 월요일에 장내시경으로 정밀검사를 한 후 빨리 수술해야 될 것 같다. 대장검사는. 또한 장 X-ray검사를 할 때 주어진 약물을 음식과 함께 빼먹었다 하는데 계속 금식을 했으니 그 약물이 빠지지 않고 오래 두면 굳어 버려 큰일 난 뿐 아니라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의사한테 야단을 맞았다면서 빨리 금식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금식도 내가 하기로 정했었던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으면 못하겠구나 새삼 깨달으며 즉시 서당에 보호식을 청구하여 먹기 시작했다.

5년 전 위암 수술 이후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왔고 이번에도 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소견없이 끝났는데 7일 후의 종합 판정에서 담당의사는 별 것 아니라면서 장내 종양의 이상유무를 나타내는 수치가 조금 높으니 시간이 나면 한번쯤 가까운 병원에서 대장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5년 전 초기 위암을 발견하여 수술한 경험 있고 휴가를 얻어 놓은 상황이고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장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1주일 동안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하여 청원기도원으로 갔다. 대장검사를 위하여 기왕에 금식을 시작했으니 금요일에 집회까지 계속하여 금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등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좀더 깊은 관계를 맺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금식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되었다. 오전 11시쯤 되어 병원에 결과를 보러 갔던 아내로부터 급한 호출이 왔다. 아내의 아가일이 즉 CT검사에 이상이 없는데 장 X-ray 사진상에서 무슨 덩어리가 보이는 데 일일치도 모르겠으니 월요일에 장내시경으로 정밀검사를 한 후 빨리 수술해야 될 것 같다. 대장검사는. 또한 장 X-ray검사를 할 때 주어진 약물을 음식과 함께 빼먹었다 하는데 계속 금식을 했으니 그 약물이 빠지지 않고 오래 두면 굳어 버려 큰일 난 뿐 아니라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의사한테 야단을 맞았다면서 빨리 금식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금식도 내가 하기로 정했었던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으면 못하겠구나 새삼 깨달으며 즉시 서당에 보호식을 청구하여 먹기 시작했다.

구 목사님을 비롯하여 청년2부 목사님 등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많은 분들에게 달려 중보기도 해 주실 것을 부탁해 놓았다. 금방이라도 수술할지 두려울 것 같은 내 모습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매달린 것이다. 우리 가정은 온 성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토요일과 주일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날 토요일의 가정예배 시간은 내가 어찌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치료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온통 눈물 비껴했다. 아내가 먼저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의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 가장 귀하고 합당하고 잘 어울리는 남편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이고 교만함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다. 아이들도 어찌면 아버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울먹이고 있는 때 나는 마치 무슨 유언이라도 있는 참담한 기분으로 내 심정을 털어 놓았다. '암 수술은 한 번 치르기도 힘든 일인데 수술받아야 된다. 사가나니 나 자신 없었다. 그래서 아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 하신 기도를 생각하고 그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할 때에 온 가족은 회개의 기도와 감동한 중보기도를 드렸다.

이튿날 청년2부 교사기독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에게 대한 상항을 모든 교사들에게 설명하시고 중보기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의사의 손을 열어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병원에 갔다. 검사하는 동안 모니터를 통하여 대장 속을 의사와 함께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의사와 나는 아무 이상을 찾지 못하였고 의사는 이상하다며 역시 아무 이상을 찾지 못하자 의사는 자신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때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열마나 읊조렸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진이 잘못 나왔겠는가. 하나님께 아뢰어 목사님과 전도사님, 집사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셨다고 믿는다. 의사가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여 약속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일을 통하여 아끼고 애나와 함께 우리 가족에게는 주 안에서 함께 온혜를 주셨고 청년2부 14조 조원들에게는 나를 위하여 헌제 기도회를 하고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고사들을 들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나를 주께로 한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또한 위암수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드린다.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난 후에 뒤늦게야 아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정! 요즘처럼 가정 파괴가 매우 넓고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진지하게 인식되고 있음은 역설적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가정의 회복과 자치에 대한 관심의 가지는 평강이 중요하고 소망스런 현상이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는 붕괴되고 만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정 환경이란 참으로 중요하다. 문제부터, 문제까지 결국 문제를 받게 되고 사회를 험악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 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 문화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다. 옛날 가부장적 문화 가운데서는 집안 어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까지 집안의 모든 정서를 잡아주고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현대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는가?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는 그저 집안에서 경제적인 책임 정도만 지는 역할로 축소, 전락되었다. 그러다가 IMF한파로 실직을 당하고 자신의 역할을 잃고 나니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가족관계는 점점 험악해지고 가정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아버지는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개개인의 사상, 가치관, 현실 감각이 매일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로는 가정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거점을 수 없는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가정은 마치 거센 파도에 산란 조각이 나는 나뭇배처럼 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한가? 만치 이 가정을 누가 세우셨는가? 그리고 가정의 진정함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시편 127:1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정의 출발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결혼을 제사라 칭해 대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써 거두나를 될 때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는 진정한 의미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의 창조자 창조 사역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정은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산 교회였다. 예배소에서 보면 바를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엡 5:22-33). 이것은 구속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가 바로 피로 타락한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책임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창조와 구속 경관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타락은 곧 창조 사역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가정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할 가정에 죄가 들어온 후, 미움과 시기과 질투가 자리잡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복의 통로였던 가정이 인간의 타락으로 폐곡되고 변질된 것이다. 이처럼 폐곡된 가치관으로 깨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가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가정 창조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꿈꾸며

조 칠 수(목사, 신혼가정부·13교구 지도)



중심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결혼을 제사라 칭해 대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써 거두나를 될 때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는 진정한 의미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의 창조자 창조 사역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정은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산 교회였다. 예배소에서 보면 바를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엡 5:22-33). 이것은 구속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가 바로 피로 타락한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책임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창조와 구속 경관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타락은 곧 창조 사역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가정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할 가정에 죄가 들어온 후, 미움과 시기과 질투가 자리잡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복의 통로였던 가정이 인간의 타락으로 폐곡되고 변질된 것이다. 이처럼 폐곡된 가치관으로 깨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가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가정 창조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유치부 초청전도집회

어린이는 과일나무와 같이 새싹이 돋고 어린 어린이 마음 꽃송이와 같은 어린이 얼굴 푸른 잎과 같은 어린이 생각 구슬이여 어린이들을 과일나무 되게 하소서. 향기로 온 열매 맺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여러분의 귀한 공녀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풍성히길 원하십니까? 귀한 자녀를 위하여 유치부에서 귀한 주님의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향기로 온 열매 맺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 일시: 6월 14일 오전 8시 50분과 10시 50분 (유치부 1, 2부 집회시).
- 장소: 교육관 205호

지체들 소식 / 부시 탐방

지체들 소식

영아부

5월 마지막 주일을 기해서 가족 찬양이 은혜 중에 막을 내렸다(사진). 그러나 5월 이후에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영아부가 되길 원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영아부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주신 일인 교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유아부는 5월 마지막 주를 반별 친교 주일로 지냈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선생님들도 얼마만큼 어린이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린이들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으며, 4, 5세 어린이를 두신 어머니들께 부탁합니다. 유아부로 보내 주셔서 감사를 먼저 하며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 어린이로 키우세요. (임미홍 통신원)

유지부

"나의 소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탐방 - 성당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충만할 곳

누구든지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은 선교관 2층에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오던 어떤 내용의 문제들도 모두 털어놓고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두란 원로전도사님이 상담실이 성당 내부에 자리 잡아 계속 이곳을 지키고 계신다.

상담실에서는 신앙상담을 주로 한다. 그러나 가정문제, 결혼문제, 사람들과 만났던 문제 등 신앙인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담들도 많이 하고 있다. 신앙에 관한 것은 기도 응답에 관한 것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이단종파에 가담하게 되었는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단 연구실을 자료로 요청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그 이단의 성립과 성질, 주장, 내세관 등을 바로 알려 주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설날과 추석때의 제사문제나 추모예배 등 많은 기독교인이 갖게 되는 문

찬양 속에 굳은 다짐이 담긴듯 작은 일들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힘겨운 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순서에는 심장을 상징하는 하얀색 천이 우리의 죄로 얼룩지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속해 담겨져 흰 눈처럼 하얗게 되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일(14일)에는 유치부에서 '친구 초창찬치'를 갖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유치부 모든 교사들은 늘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많이 믿고 보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유년부

벌써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우리 선생님들 소개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오늘은 6과, 공금하시죠? 화목하고 남나소속을 불분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과를 만드려고 노력하시는 장용희 과장님을 선두로 여러 선생님들이 계획, 먼저 한잔씩 선생님을 항상 기도와 열심으로 전도에 힘쓰시는 정도호 전도대장님이시죠.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서 각종 현관 제작을 하시는 멋있는 방미에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며 특히 침술로써 아픈 자를 고치시는 약은 조금복 선생님이요 보내드립니다. 백문원 선생님은 모든 일에 열심이며, 특히 백의의 천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오정희 선생님이 계시고요, 학생전도대 불구구고 심방과 기도가 철저하며 학생들과 재미있게 어울리는 정혜라 선생님이요 있네요. 바쁜 한 사람명까지 전도에 힘쓰시는 박일선 선생님이 6과에 우리 유년부의 열매처럼 선생님도 모였지요. 다음 주는 유년부의 가장 보배인 신입생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이끄시는 신림과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지훈 통신원)

유년부 천국을 향한 작은 천국 잔치를 열면서

♫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조 주의 얼굴 뵈소서

어린 찬양대의 힘찬 찬송으로 초창전도 잔치 예배는 시작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뉜 예배에서 김영기 전도사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 설교를 전하셨다. 말씀을 듣는 어린



영혼들은 모두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로 쫘궁쫘궁 귀를 기울였다. 말씀을 따라 부르심과 영접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겠다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모두 일어나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예배 후 친교의 시간에는 3과 선생님이 기타와 맴버린과 가벼운 율동으로 잔치의 기분을 한껏 돋우었다. 이어서 새 친구들을 환영하는 특별 순서로 6과의 선생님들이 각 나라 고유의상을 입고 가장 행렬을 하면서 새 친구를 손을 잡고 인도하여 입장하였다. 각 나라의 고유의상을 멋지게 차려 입은 선생님들의 모습은 마치 세계 기행을 떠난 착각을 일으켰다. 선생님들의 예쁜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기쁜 환호성으로 즐거워했다. 새로 나온 친구들은 오늘의 귀빈(?)이었기에 사신 환영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인형극 '장구의 믿음'을 볼 때도 맨 앞자리에 앉는 특권을 누렸다. 숲 취한 아버지들을 전도하는 장구의 얘기에서 장구가 어려울 때, 장구의 편이 되어 주는 유년부 어린이들의 사랑과 전도를 향한 착신을 우렁찬 박수를 통해 맞을 수 있었다. 또한 이 박수는 힘겹게 인형극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에게는 수고와 격려의 박수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부와 2부예배를 합쳐 모두 24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흔히 교회학교 초창전도잔치는 형식적이고 행사 일적으로만 그치기 쉽다. 그러나 유년부의 작은 천국잔치는 전교사 연수기도의 결실임과 동시에, 매주 토요일 학교 전도대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열심이는 복음전파의 결과였다.

오늘 새로 나온 유년부 친구들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며, 친구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나누는 곳임을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계속적으로 믿음과 말씀의 분량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유년부의 작은 천국잔치는 막이 내렸지만 앞으로 더 큰일이 남았다. 바로 새로 믿음의 길로 들어선 어린 영혼들을 잘 인도하여 유년부 안에서 계속 자라나갈 새싹으로 키워 내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유년부 신입과 전도에 힘쓰시는 선생님,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소망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돋이기를 바라고 있다. (김원주 통신원)



구에도 각각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각기 소속된 부서와 교구에서 특정한 상담을 하여 이곳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것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실은 원요일엔 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부터 4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금요일은 1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까지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이라는 것이 상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담자의 이야기만 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 같이 있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상담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고 느끼는 것은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면서 이목을 찾아왔더라면 말씀으로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 다시 서로

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이두란 원로전도사님 밝히신다.

상담실에서는 항상 비밀이 보장되고 신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누구에게나 상담실 문을 열려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을 들어 주고 위로해 주며 성경말씀으로 고쳐주어 함께 기도하자며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자신의 일들만 생각하기 바쁜 현실이지만 남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한다.

(글/박주영 기자)

교 회 소 식

● 알 림

1. 제직회 안내 / 14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 '98 단기보고서 파송예배 안내 / 14일(다음 주일) 찬양예배시 단기선교회 파송예배를 드립니다.
3. 임마누엘관대 · 오세소리의 '작은 사랑 음악회' 안내 / 13일(토) 19:30 사초구민회관에서 있습니다.
4. 출현복지자 자원봉사자 모집 / 정신전도지 장애인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로서 만 18세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가능한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송현복자관(564-6885, 565-7564)

● 모 임

1. 장미교회 / 10일(수) 11부예배 후, 당회실
2. 장로 회화새벽기도회 / 9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진교관 404호
4. 남녀전도부 각교구 연합회, 화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캄핀홀
5.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6.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방 예배실
7.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1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8. 경향전도회 월례회 / 14일(다음 주일) 15:00, 캄핀홀
9. 인수집사회 월례회 및 부부 찬양연습 / 오늘 15:10, 교육관 314호
10. 인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 성경공부 / 8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11. 권사회 제2지회 월례회 / 10일(수) 1부예배 후, 사랑방실

● 남녀전도회

1. 베드로 1 / 9일(화) 19:30, 제2교육관 1층(부부동반)
2. 베드로 2 / 월례회 및 기도회, 12일(금) 금요교회 후, 영아부실
3. 베드로13 / 13일(토) 17:30, 권영주 집사함
4. 한 나14 / 14일(다음 주일) 교구모임 후, 만나홀
5. 루디아16 / 14일(다음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열 108호
6. 미리아 3 / 9일(화) 10:00, 산동

● 결 혼

1. 김창수군(김종천 집사, 친척자 집사의 아들, 제9교구)과 김은영양(김교철 씨, 남순정 씨의 딸) / 9일(화) 12:30 갈릴리움
2. 최윤호군(최두철 집사, 최영선 권사의 아들, 제11교구)과 조영란양(조산용 집사, 강병희 집사의 딸, 제9교구) / 12일(금) 12:00 갈릴리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031	정윤호	1	청년2부		1042	범병민	4	청년2부	박윤석(8)	1053	고수정	19	청년1부	윤수원(7)
1032	이해경	1	청년2부		1043	정영자	5	예스2	전혜숙(5)	1054	김세형	19	고등부	
1033	한재숙	2	푸디아		1044	이희진	12	청년1부	유홍자(11)	1055	박효심	19	청년2부	
1034	손일근	3	베드로	정필조(3)	1045	김기영	14	청년2부	최정준(1)	1056	최소진	19	청년1부	
1035	이금순	3	푸디아	정필조(3)	1046	추경애	15	한나	서정자(11)	1057	이희진	19	청년1부	권영일(19)
1036	장재숙	3	청년2부		1047	김미경	17	청년2부	강순(3)	1058	김정실	19	청년1부	권영일(19)
1037	양은혜	3	청년2부		1048	이진복	19	청년1부	이민복(11)	1059	김재홍	19	대학부	
1038	김현수	4	청년1부		1049	박영미	19	예다다부		1060	박영진	19	대학부	
1039	허명화	4	청년2부	박윤석(8)	1050	권순호	19	예다다부		1061	이현진	19	대학부	
1040	이금영	4	예스2	박윤석(8)	1051	김준호	19	청년2부	손소옥(19)	1062	조진경	19	대학부	
1041	최 권	4	청년2부	박윤석(8)	1052	윤서영	19	청년1부	윤수원(7)	1063	정영혜	1	청년1부	허연옥(2)

※송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물음

죽 음

이 소 현(권사, 1교구)

죽음이 찾아오는 6월을 맞이할 때면 현충일과 6·25전쟁일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기억하게 된다. 이런 시절 통족장안의 전쟁을 경험한 나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성장해 왔다. 요즘도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본다.

학자들 사이에서 근대까지는 '죽음'의 문제를 금기시하였으나 현대에는 이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되어 죽음학(Thanatology)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역도 전문화되어져 천주교에서는 깊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아직 드문 상태이다.

'죽음'은 삶을 총체적으로 완결하는 조연이며 생명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한때 아울러 고뇌하고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하는 공동체적 과제

이기도 하다. 삶은 만남이며 '죽음'은 헤어짐이다. 생명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된다. 만남은 늘 헤어짐과 연결되며 이는 삶의 구조이기도 하다. '죽음'은 당연한 삶의 귀결이다. 그리고 삶 자체가 공동체적 인 것이어서 '죽음'도 불가피하게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멸절이나 이별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출발이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해 준다. '죽음'은 미저령의 영역이기에 무한한 탐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통한 '죽음'이 우리의 신앙적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

비서직 · 전산직 직원 모집

송현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비서직 및 전산직을 책임질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본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를 받은 40세 미만의 남자
2. 근무직
 - (1) 비서직 - 0명
 - ① 정규대학 졸업자
 - ② PC 사용 가능자
 - ③ 해외 여행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
 - (2) 전산직 - 0명
 - ① 전산 경력 3년 이상
 - ② 상용 DB 숙련자
 - ③ 4GL, JAVA 사용 경험자
 ※ 교회에서는 UNIX에서 INFORMIX 사용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자기소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송현교회 사무국
주소: 강구동 옥삼동 665-1
전화: 552-8200 교한 402

금주의 기도 제목

-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관용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각 구역예배 및 남성도 구역예배가 복음의 새봄을 깨닫고 힘있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송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③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찬양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젊은 아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 ⑥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⑦ 송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이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홍석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김원수 김형준 김재철 이송수 정성진 강민도 조호환 김철수 김동환 차광운 김복배 김진식 권관영 서광진 이송환 정해성
- 협동목사
 - 윤영태 박형용 노봉진
- 선교사
 - 이준호 안석철 김영대
- 김도사
 - 이종환 박노철
- 원로전도사
 - 이두란
- 어전도사
 -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대주 김경자 배옥민 최희혜 손미희 송학자 신동자 윤진옥 오정숙 오인숙 김득숙 함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복희 최영만
- 교정전도사
 - 박양덕
- 교육전도사
 - 박인기 엄현일 한승일 이종환 김영기 송원식 김창중 조재민 최진우 허유구 이우찬
- 선교전도사
 - 장기경 정은희 박태양
- 원신전도사
 - 유병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6월 14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헌전자

- ◆ 2부예배

오르간 김원경(임마누엘찬양대 반주자) (찬양곡목)

 - 주후 아메송(제3권 379) · 내 주를 찬양(제3권 380)
 - 주후 의지(제3권 380) · 내 생애가 주는 길(제3권 380)
- ◆ 3부예배

오르간 조희경(합창부장 찬양대 반주자) (찬양곡목)

 - 히로소 · 하나님의 손에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찬미가 주께 · 노복 · 드림 · 찬양 · 찬양 · 찬양 · 찬양
- ◆ 4부예배

루디아(송현찬양대) (제3권 · 이송수 찬양, 피아노 · 김남옥) (찬양곡목)

 - 내 맘 속에 있어 · 내 영혼이 은총의 아람 · 402
 - 나의 영혼을 주께 ·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은(제3권 241)
 - 내 영혼의 그릇이 되리라(제3권 409) · 주께 감사(제3권 409)
- ◆ 5부예배

바리새 김대수(임마누엘찬양대 찬양자, 피아노 · 오근) (찬양곡목)

 - 하나님의 기도 · 사랑의 밤 사나바를 부를(제3권 402)
 - 주후 찬미가 주는 길(제3권 380) · 이혼 없이 되리라(제3권 380)